윤석열 사퇴에 野 시끌 입당 가능성 의견 분분

대통령 선거 D-1년

윤석열 "앞으로 민주주의 지킬 것" 정계 입문 시사
내부적 시선 엇갈려…"당장 오면 본인 할일 없어"
"좋은 대안이 생긴 건 맞지만 단계 밟아갈 필요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접촉 가능성…제3지대도 여지

차기 대통령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대권 구도에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윤 총장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합류할지에 눈길이 쏠리면서 당 내외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윤 총장은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이 아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총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라며 구성원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의를 1시간 만에 수용했고 5일 검찰총장 면직안을 재가했다.

윤 총장의 정계 진출 가능성은 즉각 화두가 됐다. 윤 총장은 사의 표명 당시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정계 입문을 시사하기도 했다.

정부·여당과의 충돌 끝에 자리를 박차고 나온 윤 총장이기에 정계에 들어선다면 발걸음이 야권으로 향할 것이 자명해 보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이 정부하고 정면충돌해서 나온 사람 아니냐. 야인이 됐으니 야권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문제는 국민의힘의 합류 여부다. 국민의힘 측은 공식적인 발언으로는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만큼 내부적으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본인이 본인 생각도 정리해야 하고, 국민들에게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평가를 받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당장 입당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당장 오면 본인이 할 일도 없고 여러 측면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의원은 윤 총장의 사의 표명 시기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중요한 4·7 보궐선거 후보들을 발표하는 날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나. 스포트라이트를 가져가며 상대적으로 후보들이 밀린 감이 있는데, 국민의힘에 올 생각이 있었다면 그때 사퇴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당장 4·7 보궐선거가 코 앞인 만큼 외곽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가 최선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윤 총장이 정치를 할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예컨대 진중권도 정치를 직접 하면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자꾸 윤 총장을 정치 굴레에 덧씌워 옭아매려는 것은 그야말로 청와대가 바라는 바"라고 우려했다.

윤 총장은 여론조사에서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 명단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충돌이 정점에 달했을 때 치솟았던 지지도가 지금은 많이 떨어진 상태다. 인지도는 시기를 타기 마련이기에 단순히 '인물론'에 입각해 외부 인사를 데려오는 건 이제 지양해야 한다는 성찰도 있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반기문 사례처럼 정치인으로서 준비가 안됐다는 게 드러난 사례도 있지 않나. 윤 총장도 단계를 밟아갈 필요가 있고, 당이라는 조직이 준비 안 된 분을 영입해서 키운다는 건 회의가 있다"며 "우리로선 좋은 하나의 대안이 생긴 것은 맞지만, 혹독한 과정을 견딜 수 있는 자원인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결국 또다시 외부로 눈길을 돌릴 경우, 당의 인물들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현상을 염려하는 시선도 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도 홍준표·유승민·원희룡 등이 미리부터 대선 출마 의지를 피력하고 활동하고 있는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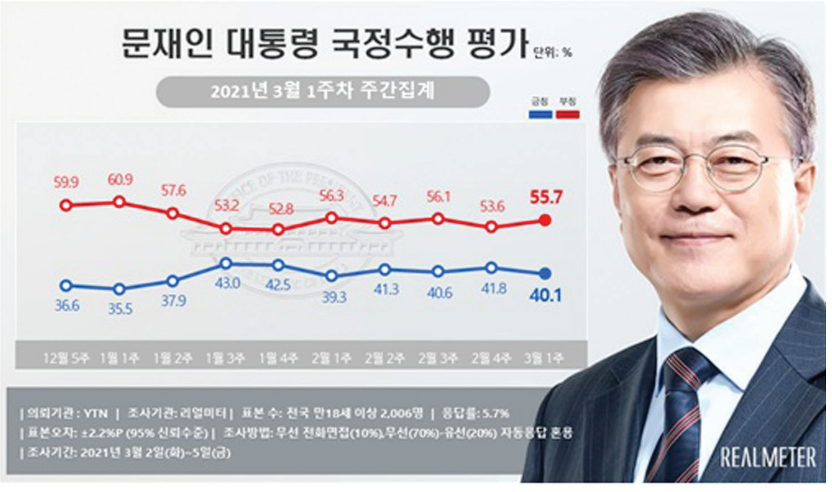
한 의원은 "기존의 대선 주자들이 흥행할 수 있는 필드는 안 만들어주면서, 또 윤 총장 이야기가 나온 게 답답하다"며 "이런 상태가 선거마다 반복되면 국민들이 우리 당에 신뢰를 줄 수 있겠나. 자체적으로 민심을 끌어오고 변화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윤 총장이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당 등 제삼지대와 접촉할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이 적폐 수사 등으로 보수 지지층에서 마냥 환영받기는 힘들기에 제3지대 세력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만나며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윤 총장을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 대표는 윤 총장의 사의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통탄을 금치 못 할 일"이라며 "이번 윤 총장의 결정은 정권의 부당함을 직접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뉴시스

文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LH 투기 의혹 영향"

文대통령 1.7%p 하락 40.1%
민주당도 1.9%p 떨어진 31%
국민의힘은 1.3%p 올라 32%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소폭 동반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3월1주차(2일~5일) 주간 집계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1.7%포인트 내린 40.1%(매우 잘함 22.0%, 잘하는 편 18.1%)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부정 평가는 55.7%(잘못하는 편 16.2%, 매우 잘못함 39.5%)로 2.1%포인트 올랐다. '모름·무응답'은 0.4%포인트 감소한 4.2%였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15.6%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민주당은 1.9%포인트 내린 31.0%를 기록했다. 국민의 힘은 1.3%포인트 오른 32%로, 민주당과 오차 범위 내 비슷했다.

문 대통령의 평가와 민주당의 지지도가 동반 하락한 것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보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전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일간 지표를 살펴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LH 전·현직원의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난 2일에는 지지율 38.8%(3.3%p↓, 부정 평가 56.2%)였고, 3일은 38.2%(0.6%p, 부정 평가 56.7%)로 하락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이 오후 사퇴를 발표한 다음날인 5일에는 41.9%(0.7%p↑, 부정 평가 54.7%)로 강보합 양상을 보였다.

정당 지지도 일간 지표에서도 민주당은 2일 28.8%, 3일 28.7%로 약세를 보였다. 4일엔 33.2%, 5일은 33.3%였다.

배 위원은 "윤 총장이 4일 오후 2시에 사퇴 발표를 한 후 여론이 5일 하루만 반영돼 영향력이 제한된 측면이 있다"며 "오히려 사퇴 발표 이후 진영 결집력이 높아진 면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진보층(4.3%p↑)·중도층(3.2%p↑)에서 함께 올랐다. 특히 부동산에 민감한 30대(5.7%p↑)·40대(4.3%p↑)와 이번 LH 의혹이 발생한 수도권(인천·경기 5.4%p↑)에서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민주당의 경우는 중도층(28.2% → 26.5% 1.7%p↓)보다 진보층에서 하락폭(62.8%→57.4% 5.4%p↓)이 컸다.

한편 이밖에는 국민의당은 0.9%포인트 오른 8.1%, 열린민주당은 0.1%포인트 오른 6.8%, 정의당은 0.4%포인트 오른 5.2%다. 시대전환은 변동 없는 0.6%, 기본소득당은 0.2%포인트 내린 0.6%를 기록하였다. 무당층은 전주 대비 0.3%포인트 감소한 14.2%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보수층(54.1%→57.5% 3.4%p↑)보다 중도층에서 상승폭(31.0%→35.0% 4.0%p↑)이 컸으며, 전체적으로 강세 흐름을 유지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18세 이상 유권자 3만5348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2006명 응답을 완료해 5.7%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뉴시스

단일화 싸움 앞둔 오세훈·안철수, 일단 박영선 협공

吳 "'박원순 성추행' 절절한 반성 없어 시장 자격 없다"
安 "여성을 표가 아니라 인격체로 존중하면 사죄해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단일화 협상을 앞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8일 단일화 신경전을 잠시 접고 범여권에서 나홀로 독주하고 있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동시 협공에 나섰다.

오 후보는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가 있게 된 원인이 전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으로 비롯한 스스로 세상을 등진 그것이 원인이 됐는데 박영선 후보의 출마 선언문부터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그 점에 대한 절절한 반성이 없다"며 "이런 분은 다음 시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물론 형식적 말씀을 하셨지만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분명히 피해자가 있는데 2, 3차 가해 현상이 이 정부로부터 민주당으로부터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나오고 있는데도 그 점에 대해서 절절하고 진심 어린 반성이 없다"고 부연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사진 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안 후보는 당 회의에서"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 땅의 한 명 한 명의 여성을, 한 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마음이 티끌만큼이라도 있다면 오늘 여성의 날을 맞아 소속 단체장들의 성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며 전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